

# 독일

## 청년 문화향유 증진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패스

출처: 문화패스 홈페이지(www.kulturpass.de)  
독일 연방문화미디어부 홈페이지(https://www.bundesregierung.de/breg-de/suche/start-der-zweiten-runde-kulturpass-steht-ab-sofort-auch-dem-jahrgang-2006-zur-verfuegung-2262746)

### 18세 청년 모두가 누리는 문화패스(KulturPass)

- 독일 연방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관객 및 매출의 급격한 감소로 고통받은 지역 문화제공자들을 지원하고 청년들에게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문화패스(KulturPass) 사업 시작
- 2023년 6월부터 18세가 된 청년 모두에게 문화패스를 발급하여 문화 향유 및 탐방 지원
- 문화패스 사업의 목적은 청년들이 지역의 문화 현장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, 청년들과 문화제공자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을 만들어 문화제공자들이 장기적으로 젊고 새로운 향유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
- 문화패스 사업은 독일 연방하원이 클라우디아 로스(Claudia Roth) 연방 문화미디어부 장관과 크리스티안 린드너(Christian Lindner) 연방 재무부 장관과 함께 추진

### 18세 청년 1인당 100유로 문화패스 지원

- 2023년 6월에 처음 시작된 문화패스 사업은 애초 독일 청년들이 18세가 되면 200유로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,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는 100유로로 조정
- 문화패스 모바일 앱을 출시하여 청년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 결과 2024년 2월 말 기준 120만 회 이상 사용, 약 2,440만 유로의 매출액 기록
- 사용자의 신원 확인은 문화패스 앱의 온라인 계정 등록 시 ID 발급 절차에 의해 간편하게 수행되며, 각종 문화행사 관람권은 앱을 통해 예약 가능



### 전국 260만 개 이상의 문화행사 및 공간에 사용 가능

- 문화패스 플랫폼은 시장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청년들과 문화제공자를 한데 모을 수 있으며, 문화제공자는 문화패스 플랫폼에 등록하기만 하면 이벤트와 문화상품 제공 및 판매 가능
- 문화제공자가 문화패스 마켓플레이스에 상점을 만들 때 등록에 필요한 것은 ELSTER(ELektronische STEUERERklärung; 전자 세금 신고 플랫폼) 조직 인증서뿐이어서 등록 절차도 간편
- 문화패스에 허용되는 문화 범주는 국가 지원법(GBER53, 54항)의 조항을 기반으로 하되, 극장, 콘서트/오페라 하우스, 영화관, 도서관, 서점, 음반 소매점, 레코드점, 박물관, 기념관, 공원, 식물원 등 대면 형식의 문화 장소에 초점을 두고 있고, 전국 260만 개 이상이 등록





### 지역 문화사업자와 청년 모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패스 도입 필요

- 기존에 전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복지 사업인데 반해, 독일의 문화패스는 문화생산자와 청년 향유자를 직접 연결해주면서 문화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생태계 강화 효과 창출
-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24년 3월 말에 처음으로 19세 청년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'문화예술패스' 제도를 도입했으나 전시와 공연으로 사용범위가 한정되고, 전국 지자체 공연장 중 일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, 민간 플랫폼인 예스24와 인터파크를 활용하도록 하여 지역의 문화사업자들이 직접 등록하기 어려운 구조로 확장성에 한계
- 서울시는 2023년에 전국 최초로 '서울청년문화패스' 사업을 시작했으나 가구소득 중위소득이 150% 이하인 가구의 20~23세 청년만 해당되고, 통장 및 카드를 발급받아야 해서 사용이 번거로우며, 전용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공연 및 전시에 한 해 1회당 7만원 이내로 사용범위가 제한
- 국내 문화패스 사업이 청년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 반면, 독일의 문화패스는 지역 문화사업자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도 목표로 두고 있으므로, 이를 참조하여 지역 문화생태계와 청년 문화향유 모두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사업 모색 필요

### 최영화 인천연구원 연구위원

- ✓ 충청남도에서 청년문화패스 사업을 도입하고자 한다면, 중앙정부와 서울시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청년과 지역 문화사업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
- ✓ 독일의 문화패스 사례와 같이 문화사업자와 향유자가 간편하게 등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며, 관내 다양한 문화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및 범위의 확대 필요